

△ 2001년도 표어 △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자

순복음 Life

제8호

발행일 2001년 8월 5일

발행인 : 한승권

위원장 : 김미진

편집처 : 문서발간위원회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순복음중앙교회 ☎ 343-800 충남 당진군 당진읍 채운리 162-1
http://www.djfgcc.pe.kr ✉ hagape@netsgo.com ☎ (041) 352-5278, 356-5278, 357-9547(Fax)

<8월의 기도>

행복합니다

권사 최정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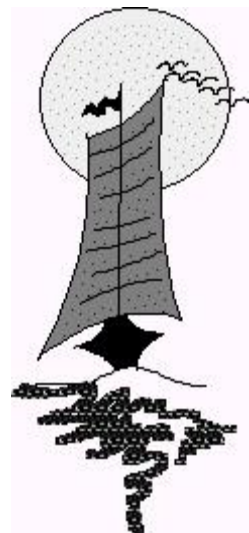
주님!
주님의 자녀됨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바라보니
참으로 풍성한 것뿐입니다.

7월은 푸르름이 가득합니다.
이 대자연 속에서 살며
그 풍성함을 느끼면서
주님 앞에 머리 숙입니다.

때로는 좌절하고 실망할 때
주님은 나에게
응성 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의 자녀 됨이
진정 행복합니다.

참으로 많은
은혜 안에서 사는 저는
더욱 더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며 온유한 겸손한 자세로
낮아지는 모습으로
모두를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어린이일수록 자외선 차단에 신경써야〉

자외선은 어른과 아이에 상관없이 피부의 가장 큰 적이다. 아이도 당연히 자외선에 많이 노출되면 주근깨나, 색소침착, 일광화상 등이 생길 수 있다. 실제로 태양광선에 의해 일광화상을 입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어린이가 훨씬 더 많다. 평생 받는 자외선 양의 절반을 만 16세 이전에 받는다는 통계가 있어 어려서 노출되는 자외선에 대한 많은 경각심을 갖게 되었다. 어린이일수록 자외선 차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자외선의 양은 계속 축적되므로 어린 시절의 자외선 노출과 점의 갯수는 서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어른이 되어서 주름이 생기는 정도나 피부 노화의 정도가 더 심할 수도 있고, 자외선에 노출되어 나타나는 피부암의 한 종류인 '기저 세포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기도 한다. 특히 아토피성 피부염이 있거나 일광 두드러기 등과 같은 광과민성 피부 질환인 햇빛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의 경우에는 자외선에 의해 더욱 악화되기 때문에 최대한 차단에 신경을 써주어야 한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은 기본이다. 대부분이 외출할 때 얼굴에만 바르는데, 얼굴보다 팔목이 자외선에 더 많이 노출된다는 보고가 있다. 또한 차단제는 몸에도 꼼꼼하게 발라주어야 한다.

야외에서 오래 있게 될 경우에는 모자와 통풍이 잘 되는 긴소매의 옷을 입혀 물리적인 차단도 해 주어야 한다.

〈아기의 여름철 습진〉

유아기 때는 신진대사가 활발하기 때문에 피지 분비도 그만큼 왕성하다. 그러다 보니, 얼굴이나 두피에 황색의 비듬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지루성 습진'이라고 부르며 주로 2~3세 이전의 아기에게서 흔하게 나타난다. 이런 유아 지루성 피부염은 굳이 치료하지 않아도 합병증만 일으키지 않는다면 대개는 정상으로 돌아간다. 따라서 엄마의 일상적인 관심이 중요하다.

또 다른 하나는 얼굴이나 목, 팔, 다리 부위에 붉고스름하고 껍질꺼질하게 일어나는 '피부 알레르기성 습진'을 들 수 있다. 아기들은 주로 아토피성 습진인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갑자기 습진이 생겨 고생하는 경우가 있다. 알레르겐을 제공한 원인이 사라지면 바로 없어지기는 하지만, 일단 증상이 나타나면 매우 가렵기 때문에 의사에게 보이고 약을 처방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홀히 생각하면 긁어서 상처가 난 부위에 세균이 감염되어 2차 피부염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예방과 치료〉

1. 두피에 생긴 지루성 습진은 수건을 물에 적서 머리를 감싸거나 바셀린 연고나 베이비오일을 발라 5~10분정도 둔 뒤에 비듬이 충분히 붙으면 피부과에서 처방 받은 샴푸로 머리를 감겨준다.
2. 습진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의사에게 처방대로 스테로이드제 연고나 크림을 바르거나 스프레이를 뿌려준다.
3. 햇볕이 강한 시간대에는 되도록 외출을 삼가 한다.
4. 애완동물을 만지지 않도록 하고, 진드기나 먼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카펫이나 봉제완구는 치워둔다.
5. 목욕시 비누의 사용을 제한한다. 또 손톱을 짧게 깎아주고 통기성, 흡습성이 좋은 100% 면 소재의 옷을 입힌다.
6. 습진의 상태를 악화시키는 유제품이나 달걀, 빵 등을 주지 말고 알레르겐의 염려가 적고 소화가 잘 되는 곡류, 야채 등을 위주로 이유식을 준다.
7. 아기가 자꾸 긁으려고 할 때에는 칼라민 로션으로 가려움증을 진정시켜 준다.

<다음 호에 계속>

알뜰살뜰 “아나바다”

- * 남녀 아동용 샌들 : 사이즈는 4세용, 색상은 파랑색, 상태는 새것. 가격은 900원
- * 고탄력 스타킹 : 사용하지 않은 것임(포장그대로). 팬티스타킹 2개, 밴드스타킹 6개.
색상은 베이지 아이보리 회색, 다양함. 도합 1000원

제공자: 이종희

「하나님은 성도님을 돕고 계십니다」

<서론> 인생은 세상을 홀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살다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고 이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며, 삶의 힘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함을 느끼게 되며, 도움을 통해서 회복되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이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조심해야 하며, 분별할 수 있어야 하며, 판단을 잘 내려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여러분을 돕는 자시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복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1. 도움을 받으러 세상을 바라보지 맙시다.

*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

* 세상으로 들어가 살아가는 것 - 눅 9:62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합당치 아니하다” 하였음.

◆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2. 도움을 받으러 사람을 의지하지 맙시다.

*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왕의 힘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 왕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곧 왕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왕의 지배를 받으며 힘겨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해서는 안되며,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하셨습니다.

◆ 여호와 하나님은 힘과 도움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3. 도움을 받으러 물질을 의식하지 맙시다.

* 딤후 6:10은 “돈을 사랑치 말라” 하셨습니다. 이는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찢렸도다” 하였습니다.

* 물질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 사용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소유하려고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결국 물질도 채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만 받고 말 것입니다.

◆ 물질을 모을 수 있게 하시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4. 도움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 경건히 살면 - 예배하며 선을 행하고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 기도하며 살면 - 매 순간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삶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되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 은혜 받으며 살면 -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은혜를 통해서입니다. 은혜는 마치 하나님과의 교신을 가능케 하는 안테나와도 같습니다. 이 은혜는 거룩한 영역을 이루는 생명입니다.

◆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생명과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결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고 서로 고백하겠습니다.

시 121편은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만이 보장되어진 축복이요 행복인 것입니다

*** 탈수 후 바로 다리미질한다.**

드레스 셔츠나 바지, 블라우스 등 다리미질을 해야 하는 빨래는 물기가 흐르지 않을 만큼 3분 정도만 탈수를 한 다음 축축한 상태에서 다리미질을 하면 주름이 잘 펴진다. 이때 다리미질로 빨래를 말리는 것은 아니므로 주름이 펴질 정도로만 다리미질을 한다. 남아 있는 습기는 햇볕에 말린다.

*** 옷에서 향기가 나게 하려면**

스팀 다림질을 할 경우, 다리미 물 속에 좋아하는 향수를 약간 부어서 다리면 얇은 향기가 풍겨 옷을 꺼내 입을 때 기분이 상쾌해 진다. 다 쓴 향수병 뚜껑을 열어 옷장에 넣어 두어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화학섬유를 늘어붙지 않게 다리려면**

다림질을 할 때, 잘못하면 옷이 눌러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되나, 화학섬유를 다림질할 때 다리미의 밀판에 치약을 조금 발라 주면 이를 방지할 수 있다.

*** 누런 와이셔츠 컬러를 희게 다리려면**

오래된 흰 와이셔츠의 경우, 컬러가 누렇게 변해 보기 싫을 때가 있다. 이런 와이셔츠는 빨 때에도 신경을 써야 하겠지만, 다림질할 때도 신경을 써야 한다. 이런 와이셔츠를 다릴 때는 컬러에 베이비 파우더를 뿌리고 나서 다리면 신기하게도 새 것과 같이 아주 희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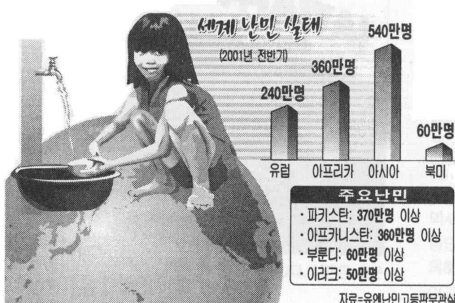
*** 녹슨 다리미는 치약으로 닦는다.**

다리미에 녹이 슬거나 오염 물질이 묻었을 때는 치약으로 닦는다. 가루 치약을 헝겊이나 칫솔에 묻힌 다음 살살 문질러 주거나 다리미에 치약을 발라 키친타월로 닦아 내면 깨끗해진다. 다리미 바닥에 화학섬유가 녹아 붙었을 때는 신문지에 소금을 펴서 깔고 그 위를 다리미로 문질러 준다. 늘어붙은 정도가 심할 때는 다리미를 시너에 담가 두었다가 치약으로 닦아주도록 한다.

*** 다림질로 생긴 얼룩은 양파로 문지른다.**

흰옷을 다릴 때 다리미 온도를 잘못 조절하거나 너무 오래 다리면 다림 얼룩이 생기게 된다. 이럴 때는 약국에서 과산화수소를 구입, 미지근한 물에 희석해(물과 과산화수소의 비율은 약 3대1 정도) 여러 번 닦아 낸 후 헹구도록 한다. 과산화수소가 없을 때는 양파의 단면으로 얼룩 부분을 문지른 후 찬물로 헹구 낸다.

- 세계 난민 상태 -



인종, 종교 또는 정치적, 사상적 차이로 인한 박해를 피해 외국이나 다른 지방으로 탈출하는 사람들.

발생 원인 : 인종적, 종교적, 사상적, 정치적 이유와 관련된 분쟁
구호 기관 : 유엔 국제난민기구,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난민의 일반적 의미는 생활이 곤궁한 국민, 전쟁이나 천재지변으로 곤궁에 빠진 이재민을 말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주로 인종적, 사상적 원인과 관련된 정치적 이유에 의한 집단적 망명자를 난민이라 일컫고 있다.

책명 : No라고 말할 줄 아는 남편과 아내

저자 : 헨리 클라우드 . 존 타운센드

<남편과 아내 모두가 행복해 지는 No의 비결>



<노! 라고 말할 줄 아는 남편과 아내>는 기본적으로 사랑에 관한 책이다. 사랑을 증진시키고 자라게 하며 계발하고 고치기 위한 책이다. 우리는 사랑을 위해 더 나은 환경, 즉 자유와 책임이라는 환경을 만들어 사랑을 성숙하게 만들어갈 것을 기대한다. 바운더리, 즉 개인의 소유권 경계선은 자유와 책임이라는 환경 속에서 사랑을 키워간다.

이 책의 열쇠는 인격이다. 인격 안에서 자랄 때, 결혼 생활에 있어야 할 바운더리를 설정하고 수용하는 능력이 성장한다. "아니오!"라는 말을 듣는 것을 거부하면 성숙하지 못한 상태로 머물러 있게 된다. 많은 사람들은 신체가 성장함에 따라 정서도 저절로 성숙해진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나이는 성숙하는 데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나이는 많지만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어리지만 성숙한 사람도 있다.

중요한 것은, 결혼 생활에 있어야 할 바운더리를 '오늘' 설정하는 것이다. 오늘 세운 바운더리는 남아 있는 나머지 결혼 생활을 좌우할 것이다. 오늘,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을 무시하거나 두려워한다면, 남아 있는 결혼 생활은 우리가 기대하고 꿈꾸는 것과는 현격하게 달라질 것이다.

남편과 아내의 하나 됨에는 온전한 두 사람이 필요하다. 성경은 온전한 사람을 성숙한 사람으로 정의한다. 남편과 아내 중 어느 한 쪽이 결혼을 통해 온전해지기를 기대한다면 그 결혼은 실패하게 될 것이다. 결혼은 온전하지 못한 한 사람이 결혼 생활을 통해 온전해지는 과정이 아니다. 그것은 온전한 두 사람이 만나 각각의 '나'보다 더 크고 훌륭한 '우리'를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성경과학

- 물의 소용돌이 -

물 소용돌이는 어떤 점에서는 회오리바람과 비슷하다. 회오리바람은 육지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물 소용돌이는 물 속에서 일어난다. 그러나 몇몇 가지 다른 점들이 있다. 가끔 강력한 물 소용돌이가 일기도 하지만 대개 회오리바람이 더 강하다. 해군 대령이었던 홈즈(Captain Holmes)는 『Weather Made Clear』란 책에 회오리바람은 북반구에서 항상 반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지만 물 소용돌이는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보고했다.

물 소용돌이는 산봉우리 구름이나 소나기구름의 아래쪽에서 깔때기처럼 형성된다. 구름이 아래로 내려오면 바다는 소용돌이라고 알려진 회전 수류를 형성한다. 이 때 바닷물은 밑에서 무엇인가가 떠밀어 올리듯이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바닷물이 위로 끌려 올라가 마치 하늘과 바다가 만나는 것처럼 보인다.

대부분 물 소용돌이는 비교적 약하며 주로 미세한 물방울로 이루어져 있어서 마치 안개처럼 보인다. 그러나 강력한 물 소용돌이는 굉장한 소리를 내며 동시에 바다를 왕래하는 선박들에게 큰 재난을 가져 준다. 현대 선박들은 물 소용돌이가 일어나는 곳을 피하여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다지 심한 위험은 없다.

물 소용돌이에 의해 올라간 바닷물은 후에 소금물 비가 되어 떨어진다. 1895년에 대사츠주의 바인야드(Vineyard) 해협 위에서 커다란 물 소용돌이가 생겼는데 이 때 하늘 높이 치솟은 바닷물은 몇 시간 후에 바다 물고기와 함께 마르다 포도원(Martha's Vineyard)위에 떨어졌다. (미해군의 D.C.Holmes 대령이 1965년 뉴욕에서 출판한 『Weather Made Clear』에 보고된 것임).



시편 42편 7절에 물 소용돌이에 대한 기록이 있다. 비록 이 구절이 비유적인 의미로 사용되긴 했지만 과학적 진리를 내포하고 있다. 시편 기자는 여기서 마음속에 맹렬한 물 소용돌이를 그리고 있다. 마치 진공(여기서는 단순히 안팎의 기압이 다른 것을 의미함)이 바닷물을 끌어올리듯이 거대한 소리가 깊은 바다 속에서 메아리친다. 사람들이 물 소용돌이 속으로 바닷물이 끌려 올라간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말씀을 하셨다.

개요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조카인 브두엘의 딸로서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리브가는 둘째 아들 야곱을 친애하여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받게 함으로써 그 후로 사랑하는 아들을 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한 비운의 여인이었습니다.

1. 쌍둥이를 낳은 여인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결혼하였으나 잉태치 못하여 고민하다가 이삭의 기도로 잉태하게 되었는데 쌍둥이였습니다. 리브가가 태 속에서 두 아들이 서로 싸우므로 여호와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두 국민이 태중에 있어 두 민족이 나누이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리브가는 두 민족을 이루는 두 아이를 잉태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주신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진 언약을 동생이 받게 될 것임을 밝히셨습니다. 리브가의 잉태가 복된 것은 단지 한 가정의 경사 차원뿐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소망하는 가운데 언약을 받을 자가 태어난다는 구속사적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계시의 말씀은 후에 리브가가 에서 대신에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게 만드는 결정적인 동기가 되었습니다.

2. 편애

에서는 사냥에 능하여 들과 산으로 다녔고 야곱은 가정적이어서 주로 리브가 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삭은 맏아들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동생 야곱을 더 사랑하였습니다. 이삭이 늙어 눈이 어둡게 되자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주려 하였습니다. 그때에 리브가는 야곱에게 축복을 받

게 하기 위하여 이삭을 속여 야곱으로 하여금 에서가 받을 축복 기도를 대신 받게 합니다. 이러한 야곱에 대한 리브가의 편애는 비극을 낳았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시기하여 죽이려 하였던 것입니다. 리브가는 야곱의 생명이 위태로움을 알고는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켰습니다. 그 일로 인해 리브가와 야곱은 생이별을 하여 리브가 생전에 야곱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리브가는 거짓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키려다가 이와 같은 비극을 맞이하였던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바라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3.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삭의 입장에서 볼 때 에서가 야곱보다 남자답게 강하고 또한 장자였으므로 당연히 에서가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개인적으로 야곱을 더 사랑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기에 야곱이 장자권을 이어가도록 한 것입니다. 야곱이 장자권을 받은 것은 리브가의 행위 때문에 이루어졌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에 대해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말 1:2-3) 라고 증거하였습니다. 여기서의 사랑과 미움은 선택과 유기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야곱이 에서보다 나은 점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에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이삭에게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이 그대로 성취되었는데 이는 역사를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증거해 줍니다.

편지

새 생명을 출산하려는 아내에 대한 고마움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사 한 승 권

여보,

무더운 날씨에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 안쓰럽고 또 고마운 마음 금할 길 없는데 내가 바쁘다는 이유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군요. 그러나 당신을 향한 내 마음은 언제나 변함없고 사랑 그 자체입니다.

처음 당신을 만나 오늘에 이르기 까지 주의 길을 함께 걸으면서 늘 도움을 받는 나였소. 가진 것 없이 시작된 살림을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않고 남편의 학업을 위해 묵묵히 일하던 당신을 지금도 생각하면 고마움과 미안한 눈물이 앞을 가리곤 합니다. 그때 고생한 것들이 이제 조금씩 나타나는 것 같아 죄스럽고, 잘 해주어야지 하는 생각을 하루에도 한 두 번은 합니다. 당신 나 말지요.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것 말ियो.

당신은 힘을 때나 어려울 때에도 싫은 기색 보이지 않고 잘 이겨주었지.

여자는 약하나 아내는 강한 갈소. 아내의 희생이 없이 성공한 남자 없고, 그 아내의 수고를 업신여기는 남편치고 잘 되는 사람 없다고 생각되오. 나 또한 당신의 고마움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목사로 살기 원합니다.

오늘 문득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예원이 낳고 당신 힘들어서 고생하던 일. 기억나지요. 목사니까 걱정 안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했지만 당신의 그런 모습 볼 때마다 죄인 같은 심정이었지. 자식 하나 더 낳고 아내만 혹사시켜 장애를 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나도 힘들었다오.

예지 하나로 만족하며 살아야지 하는 생각으로 이제껏 살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어 예원을 주셨고 이제 셋째도 주셨소(이름은 예수님 성품을 가지고 살라 하여 예성-叡聖-이라 불렀으면 합니다). 늘 주님만을 위해서 생명을 다해 살겠노라 고백하며 다짐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풍성함으로 채워주셨고 주 안에서 행복을 이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시고 계십니다.

여보, 지금쯤 매우 힘들죠?

당신은 대단한 것 갈소. 살림하라 남편 도우라 교회 일 맡은 것 빠짐없이 하라. 역시 Super Woman이오. 그러나 조심해야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임은 잊지 말기 바라며 건강해야 합니다.

이제 세 자녀를 잘 양육하여 이 아이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훌륭한 모습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합시다. 당신이나 나나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지 않소. 모든 것이 은혜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생명을 다해 잘 해야지요. 사실 나는 자식들이 잘 자라주어야 할텐데 하는 걱정과 거기에 따르는 두려움을 가끔 가지곤 합니다.

애들이 성도로서 목사의 자녀로서 잘 키워야 내가 목회를 힘 있게 할 테고 성도들도 부담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자녀들이 잘 커주겠지만 말ियो. 나는 애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게을리 하지 않고자 합니다. 내 힘으로 그들을 감당할 수 없으니 말입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이지요.

여보, 교회 일, 성도 돌아보는 일 이 모두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니 게을리 하지 맙시다. 자녀를 핑계 삼는 샅군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며 노력하고 삽시다.

우리 교회가 당진에서 제 역할을 잘 하면서 성장하리라 믿소. 모든 성도들이 잘 해주고 있고 성령께서도 함께 하시는 교회니 말ियो. 이 얼마나 감사한 지.....

순복음Life지를 통해서 편지 쓰는 것 몰랐지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출산을 몇 일 앞두고 있는 당신의 힘들을 덜어줄 수 있는 사람이 못되어 이 편지로나마 위로와 사랑을 나누고 싶소.

건강과 순산의 축복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했다고요.

여보, 많이 사랑합니다.

당신을 기쁨과 감사로 사랑하는 남편으로부터

◀아름다운 이야기▶

중소건설업체 이사인 이영씨는 아버지를 치어 숨지게 한 마을버스 운전기사를 자기 회사에 취직시켰다. 운전기사가 합의금으로 내놓은 돈도 받지 않았다.

이씨의 부친은 최장수씨가 모는 마을버스에 교통사고를 당했다. 길을 건너다 차로를 바꾸던 마을버스를 미처 보지 못한 것. 이씨 부친은 응급실에 옮겨졌지만 그날 밤 숨을 거뒀다.

이씨는 사고 직후 부하직원을 보내 최씨의 사정을 알아봤다. 최씨는 10여 년 전 사업이 망한 뒤 비닐하우스에 살고 있었고, 지난해 마을버스 운전대를 잡았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도저히 마련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그나마도 사망 사고시 해고 한다는 운수회사 규정에 따라 실직 당할 처지였다. 빈소에서 아버님 영정을 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여쭙봤습니다. “내 불행이 그 사람에게 이어지게 하지 말라” 고 말씀하시더군요.

가족들도 그의 뜻을 두말없이 따랐다. 부인 이종숙씨는 “시어머님도 일부러 낸 사고가 아니지 않느냐며 고개를 끄덕이셨다”고 했다.

두 사람은 다방에서 서로 마주 앉았다. 최씨는 어렵게 빌린 200만원을 내놓았다. 이 돈으로 합의가 되겠냐 싶었지만, 팔손 노모와 부인 그리고 어린 아들 걱정에 통사정하기로 마음먹고 나갔지요.

말없이 그를 쳐다보던 이씨가 서류 한 장을 불쑥 내밀었다. 이력서 용지였다.

다음주부터 우리 회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하세요.

이씨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진정서를 써서 합의서와 함께 최씨 손에 쥐어주었다. 눈물범벅이 된 최씨 앞으로 돈 봉투도 되돌려 밀었다.

최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불구속 처리됐다. 「사망자가 무단 횡단한 과실이 있는 데다, 피해자가 사고 운전사에게 일자리까지 마련해 준 점을 감안했습니다」.

최씨가 일하던 5여객도 이런 사정을 알고 예외적으로 해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최씨는 「너무 죄스러워 운전은 다시 못할 것 같다」고 했다.

최씨는 「은인」을 찾아 고개를 숙였다. 이씨는 「힘든 기억은 빨리 잊으라」며 그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처벌이 가벼워지도록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아버지가 살아 계셨더라도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할렐루야!

저는 순복음중앙교회에 등록한 지 4년째 되는 김 보경 권찰입니다. 먼저 이 귀한 순복음 라이프 지에 제 글을 올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처음부터 우리 교회에 등록하여 다닌 초신자는 아닙니다.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해 왔고 또한 어머니의 엄한 신앙의 모습과 가르침과 기도 속에서 자랐습니다. 이때까지는 저도 어머니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순한 양처럼 잘 따랐던 착한 딸이었지요. 그러다 청년이 되어 직장생활을 하면서부터 점차적으로 예배에 빠지고 각종 교회 모임에 빠지면서 그동안 쌓고 있던 신앙의 탑은 점차 허물고 오히려 믿음이 식어만 갔지요.

목사님의 눈물의 기도와 권면을 무시하고 안면을 피했고 교회 성도와 청년회원들 모두 만나려고 하지 않고 직장생활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와 어려운 일들을 세상 친구들과 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이 언제나 두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믿지 않는 남편과의 결혼을 반대하시던 부모님을 설득해 결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열심히 믿어서 전도해야지' 라는 생각이었지요... 하지만 시대는 모두 믿지 않는 자였고 오직 믿는 자는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또한 이곳 당진에 와서 어느 교회에 정착을 해야 할 지 망설이고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 다녔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전도하는 자 없었고 어느 교회를 가도 내가 누구인지 알려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 정착하여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시대는 주말이면 식구들이 다 모여서 일린 일을 하는데 나 혼자 교회 가겠다고 나가기가 여간 눈치가 보이는게 아니었지요. 이런 생활 속에서 하루하루는 힘겨웠고 답답했고 내게서 즐거움과 기쁨을 빼앗아 갔습니다. 평안도 웃음도 잃고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고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고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던 중 예전 남편의 직장 동료의 전화를 받게 되었고 그 분이 지금 이 교회에 집사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분은 제가 연애시절 교회 다닌다는 걸 기억하셨는지 어느 교회에 정착했는지 궁금하다는 전화였지요. 주님의 뜻이었을 겁니다.

주님께서 제게 손을 내밀어 내 영혼을 건지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했 나가겠다는 말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너무 긴 시간을 세상에서 지냈기 때문에 마음은 있으나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집사님은 계속 편지와 엽서, 그리고 주보를 보내 주셨답니다. 그때마다 저는 주보를 보면서 그 주간 성경말씀과 찬양을 찾아보기도 했지요. 그러다가 하루는 용기를 내어 예배에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움과 떨림, 설렘,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교회를 찾아 왔는데 너무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정말 사람이 넘치고 평안이 가득한 성도들의 모습이 아름다웠고 반갑게 맞아 주시는 목사님과 사모님, 전도사님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이 너무 저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마음을 열게 했습니다.

순복음중앙교회에 등록을 하면서 저는 초신자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처음부터 한 단계씩 제 믿음을 키우며 병든 내 영혼을 치유하리라 다짐하면서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목사님께서서는 너무나 바쁘신 중에서도 성도들의 영혼을 위하여 노력과 시간을 아끼지 않고 투자 하셨습니다. 각종 성경공부와 세미나, 서적 읽기를 권하셨고 이에 순종하는 여러 성도들을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 오랫동안 믿어온 내 자신을 뒤돌아보며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도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기 위해 성경공부를 하고 봉사하기 위해 열심을 내기도 하고 여러 행사에도 참여하며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게는 기쁨이 가득했고 차츰 변화되어 가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평온함이 넘치고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전에 느끼지 못했던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했습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너무나 큰 힘이 되었고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임을 깨달았지요. 목사님께서서는 제게 주께서 주신 큰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부담도 느끼고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능력과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시작한 것이 기도모임입니다. 짧지만 하루하루 정한 시간에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 여러 문제가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작은 소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열매 맺는 것을 보며 감동과 받은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또한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것이 너무 기쁘고 즐거워져서 그 시간을 그리워하고 기다립니다. 세상에서 제가 방황할 때 어머니의 가장 큰 기도제목이 되었던 이 말썽쟁이가 이제는 어머니의 기쁨이 되어 드렸지요. 이런 저의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시는 어머니는 지금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자식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신 어머니께 감사하며 나 또한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정 노력하고 준비해서 정말 주님께서 부르실 일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아직도 믿다가 좌절하거나 세상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주님의 간절히 기다리시는 모습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께서는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항상 자신들을 위해 누군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돌아오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또한 자녀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부모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자녀를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는 주님께서 응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를 다시 주님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어머니께 너무나 큰 감사를 드리고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며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멋진 청소년기를 보내기 위한 10가지 충고

하나... 젊다는 것에 대해 먼저 감사하라.
두울... 쉽게 자신을 단정짓지 말아라.
세엣... 도전이 되고 나를 깨우치는 책을 읽어라.
네엣... 친구를 선별해서 사귀어라.
다섯... 망설이지 말고 실수와 실패를 하더라도 부딪혀 보아라.
여섯... 무한한 가능성과 능력이 있음을 알아라.
일곱... 요령을 피우지 말아라.
여덟... 작은 일에 성공하여라.
아홉... 자신이 늘 자신을 감시하여라.
여열... 내가 달린 만큼 그 넓이가 내 영토가 됨을 명심하여라.

★ 실패하는 10대들의 7가지 습관

1. 대응적으로 반응하라

자신의 문제를 부모님 탓, 선생님 탓, 친구 탓, 정부 탓, 기타 여러 가지 탓으로 돌려라. 자기 삶에 대해 책임지지 말아라. 잘못된 행동이라도 하고 싶으면 무조건 하고 보자.

2. 목표 없이 행동하라.

계획을 세우지 말아라. 어떤 일이 있어도 목표는 갖지 말아라. 내일은 생각하지 말아라. 행동의 결과까지 생각할 필요가 있겠는가? 순간을 위한 삶을 살아라. 출리면 자고, 있을 때 쓰고, 놀러 다니고. 왜냐고? 내일이면 죽을지도 모르니까.

3. 소중한 것을 나중에 하라.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든 간에, 먼저 TV부터 실컷 보고, 재방송도 보고, 밤새도록 전화도 하고, PC통신도 실컷하고, 빈둥거린 다음에 하라. 숙제는 항상 내일로 미루어 버려라. 중요한 지 않은 일을 중요한 일보다 먼저 하라.

4. 자기만의 이익을 모색하라.

인생은 치열한 경쟁이라고 생각하라. 무슨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하라. 다른 사람의 승리는 나의 패배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혹시라도 질 것 같으면,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 같이 망하도록 하라.

5. 먼저 이해시키려 하고 그 다음에 경청하는 척하라.

태어날 때부터 입을 달고 태어나지 않았던가? 써먹어야 한다. 말은 되도록 많이 하고, 항상 자신의 입장을 먼저 이야기하라. 모든 사람들이 나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면, 그때 가서 상대방이 말하도록 하라. 고개로 끄덕거리고 "그래"라고 하며 경청하는 척하라.

6. 서로 협력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정말 이상해. 우리랑 생각이 크게 달라. 그들과 잘 지낼 필요는 없어. 가장 좋은 생각은 항상 나에게서 나오니까 혼자서 하는 게 제일이지. 천상 천하 유아독존! 뭐니뭐니해도 나 뿐이야.'라고 생각하라.

7. 심신을 피곤하게 하라.

쉴데없는 일들로 심신을 피곤하게 하라. 공부도 하지 말고, 새로운 것은 절대 배우지 말아라. 병에 걸린 것처럼 운동은 피하라. 그리고, 좋은 책이니, 자연이니 하는 감동을 준다고 하는 것들에 가까이 가지 말아라.

사탄의 새로운 옷, 뉴-에이지운동

(NEW DRESS OF SATAN, NEW-AGE MOVEMENT)

"그 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엡2:2)

5. 뉴에이지운동과 교회 침투

'세계종교의 통합'을 꿈꾸는 사탄의 음모는 뉴에이지 사상을 교회 안으로 침투시키고 있다. 대개의 교회들의 경우 눈으로 볼 수 있는 뉴에이지의 문화적 현상에는 다소 경계하면서도 뉴에이지 사상(종교)에 대하여는 미처 분별치 못하는 듯하다. 사실 이 문제는 뉴에이지운동의 근본목적인 '세계종교통합' 움직임이 기독교계 내에 얼마나 깊이 침투해 들어 왔는가를 알면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모든 종교단체와의 합동행사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0000범국민운동', '000사회정화위원회', '평화통일0000', 등과 같은 국가적 차원의 사회운동으로부터 시작하여 지역 사회에 이르기까지 흔히 종교계, 학계, 사회단체의 대표인사라는 명분아래 천주교, 불교, 성균관(유교), 원불교, 천도교의 대표들과 함께 목사님들이 자주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사회, 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뭔가 하신다.

또, 광복절과 같은 국가적 행사나 합동 추모제의 경우도 그렇다. 문공부 종교담당관이 불교, 유교측 대표들과 함께 정한 순서대로, 우상귀신들에게 하는 망령된 짓들을 점잖게(?) 지켜보다가 순서가 되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예배)드린다. 나라를 사랑하는 것도 좋지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지위를 더러운 귀신들의 옆자리로 격하(格下)시키다니...! 타종교는 이해한다. 그들은 이미, 여성 성직자 90명으로 구성된 합창단(천주교의 수녀 36명, 불교의 비구니 24명, 원불교 30명)을 만들어 서로 사이좋게 마리아와 부처를 찬양하는 종교통합운동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자(使者)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귀신숭배자들을 만나 영혼구원은 뒷전으로 미루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라는 명분과 명예만 찾기에 급급하다니..., 과연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셨을까?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성령님의 탄식소리를 그렇게 들을 수 없단 말인가?!

과연 오늘날, 갈멜산에서 850명의 우상숭배자들을 잡아 죽인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우상숭배의 죄를 보며 강같이 흐르는 눈물로 호소했던 예레미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나라 사랑을 외치다 순교 당한 한국초대교회의 목사님들도 결코 이렇게 가르치지는 않으셨다. 국가 사회의 질서라는 명분과 사회지도층 인사라는 명예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는 한국초대교회의 신앙전통까지 내 버리고, 뉴에이지의 술책에 빠져서 종교통합의 덫에 걸려들고 있다. 이것은 분명 귀신들과의 타협이다. 과연 나의 교회는 안전한가? 그리고 나의 목사님은...? 나의 교단은...? 나의 선교회는...?

우리의 눈은 현실을 바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하며, 우리의 귀는 성령님의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사탄은 교회 안으로 깊숙이 파고 들어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나 성도들은 이것을 잘 알지 못하고 계셔서 사탄의 울무에 잡히고 그 계략대로 움직이고 있다(?).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고 있으며 세상문화가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먹거리, 옷차림, 기호품, 언어, 문화와 예술, 의식, 사상, 심지어는 신앙형태에 이르기까지 말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멸절할 것이다.

교회가 교회의 속성인 거룩을 지켜야 하며, 세상과는 구별되는 표식을 내걸고 악령을 구별하여 멸해야 함은 자명한 것이다.

교회들이여,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 사탄의 최면술에 말려들지 말아야 할 것이다.

조선시대에 유배지였던 곳으로 만화리에 속해 만화도로 불리다가 일제 강점기에 국화리가 되면서 섬 이름이 바뀌었다. 동쪽 해안은 바위투성이이고 북쪽 해안에 조개껍데기와 모래가 섞인 해수욕장이 있다. 섬 주위에 고둥이 널려 있어 아무나 딸 수 있으며 맛이 뛰어난 김·우럭·바지락 등이 많이 난다.



충남 당진 앞바다에 있으면서도 행정 구역상으로는 경기도 화성군에 속하는 묘한 섬, 국화도. 면적은 0.39㎢이고 38가구 57명(2001년 1월)이 사는 작은 섬이다.

주변에 일출이 아름다운 석문면 왜목마을과 대호방조제, 난지도해수욕장 등 관광지가 많다. 찾아가려면 충청남도 당진군 석문면 장고항리에서 배를 타고 간다

당진 장고항에서 배로 불과 10분 거리지만, 화성땅 매항리 포구에서 직선거리로는 18km, 1시간 남짓 걸린다. 국화도 곁에는 무인도 토끼섬과 매박섬이 있다.

국화도에서 토끼섬까지는 5백m 정도 암석 해안과 모래밭이 드러나 있어 건너갈 수도 있다. 다만 밀물 때는 바닷물 속에 잠기는 길이다.

당진 화력발전소와 왜목마을이 건너다 보이는 토끼섬 주변은 굴이며, 바지락,게가 지천이다. 누구든지 양파 망태기 하나 들고 나르면 1시간만에 쉽사리 하나 가득 채워올 수 있다.

아직 우리나라에 이런 곳이 남아 있었나 싶을 만큼 국화도 뿔과 해안은 살아있다. 한송이 국화처럼 탐스럽고 복스러운 섬, 국화도. 그 곳에는 우리가 그토록 찾아 해매는 원시적 순수성과 생명성이 그대로 간직되어 있다.

위 치: 당진군 석문면 장고항리

교 통: (대중교통) 당진터미널에서 석문행(06:30 ~ 20:30 = 1시간 간격)

(자 가 용) 서울 2시간 30분 거리, 서산 40분 거리, 대전 2시간 거리

<삼계탕>

성도의 맛 자랑

이는 **계삼탕**이라고도 불리는데, 여름철에 보신하기 위하여 닭에 인삼을 넣고 푹 고아서 먹는 한국 전통 보양식을 말한다.

병아리보다 조금 큰 영계를 이용한 것은 영계백숙이라고 한다. 내장을 꺼낸 닭의 뱃속에 깨끗한 헹겍으로 싹 찹쌀·마늘·대추 등을 넣고, 물을 넉넉히 부은 냄비나 솥에 푹 삶아 고기가 충분히 익었을 때 건져낸다. 인삼을 헹겍에 싸서 국에 넣고 푹 고아 인삼의 성분이 우려나게 하여 소금으로 간을 맞추어 국물만을 마시거나, 국물에 양념한 고기를 넣어 먹기도 한다. 그러나 인삼을 찹쌀 등과 함께 섞어서 닭 속에 넣어 고면 닭 뼈에 인삼의 영양분이 스며들어 인삼의 영양분이 감소된다.

삼계탕은 삶는 시간(1시간)과 온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또한 삶은 후 건진 닭을 즉시 **밀봉 보관**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닭의 빛깔이 검게 변하고 닭살이 질겨 제 맛을 낼 수 없습니다. 육수는 닭을 건진 후 그 육수에 특유한 양념을 첨가하여 약 **40분**가량 더 삶아야 특유의 삼계탕 맛을 낼 수 있습니다.





1521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최용덕 詞曲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예수님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 까 -
 그렇게 살 수 없을 까 -
 옥 삼도없어 어둔 세상에 비추어
 남을 위하여 여당신들의 오묘을
 온전히 남을 위하여 살듯 이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나의 열생애에 꿈이 있다면
 주의 사랑은 배푸는 사랑
 어둠에 빛과 소금 되어서
 값없이 그제주는 사랑
 가난한 영혼이 천영혼을
 그려나내는 주를 그대
 주님께 인도하고 끝내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욕심은 나의 못난 자아가
 나의 입술은 주님 말씀이듯하나
 언제나 - 커다란 침되어
 내맘은 - 아직도 초하여
 나를 짓눌러 맘을 곤고케하니
 밤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
 예수여 나를 도와 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 주소서

찬양으로 받은 은혜

김연숙 집사

세상의 허물과 죄 때문에
 힘들고 고달프고,
 원망했던 지난날들...
 눈물로 얼룩진 마음을 닦개 길 없어
 괴로워했던 지난날의 기억이
 내게는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원망과 받을 것만 생각했던 마음을
 이젠 받을 것보다는
 베풀며 살아야 함을
 깨우쳐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이 찬양을 드립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욕심도 없이 내 환경을 감사하며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하고 지친 영혼을 주님께 내려놓고
 힘없고 연약한 저는
 오늘도 이 찬양을
 조용히 불러 봅니다.

“ 할렐루야!”



◆ 사이버중독의 예방과 대응 방안

사이버중독의 예방과 대응방안으로 여러 학자들에 의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방법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본인의 컴퓨터 활용정도에 따라 참고사항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하루 중 컴퓨터를 켜고 끄는 시간을 일정하게 정하고 꼭 지키도록 노력하라.

뚜렷한 목적이 없는 웹서핑을 하지 말아야 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다른 일을 다 끝마친 후에 컴퓨터를 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한시간만 채팅하고 리포트를 쓰고 시험공부를 하겠다는 생각은 이 역시 중독증상의 하나일 뿐입니다.

★ 혼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을 피해라.

남에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은밀성이 사이버 중독증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보다 공개된 장소로 컴퓨터의 위치를 옮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오락과 휴식의 도구로서의 컴퓨터 사용을 줄여라.

컴퓨터 사용은 신체적, 정신적 긴장을 유발하므로 또 하나의 스트레스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과감하게 불필요한 게임 CD는 정리하고 게임 파일을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체적 활동을 하는 시간을 늘려라.

땀을 흘리는 적절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고, 모니터 앞에서 식사를 절대 하지 않으며, 바쁘더라도 컴퓨터를 끈 채로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 사이버 공간이 아닌 현실 공간에서의 대인관계를 늘려라.

PC 게임방을 가더라도 동료, 연인과 같이 가고 혼자서는 절대 가지 않는다는 원칙을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 대안활동을 찾아라.

단순히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간만을 줄이는 데 목적을 두게되면 남은 시간에 할 일이 없어서 다시 인터넷을 하게 됩니다. 인터넷 사용을 조절하기 원하신다면 인터넷 말고 자신에게 즐거움을 주는 대안활동을 찾아서 즐기는 것도 좋습니다. 한 두 가지 말고 가능한 한 여러 개가 좋습니다.

☞ 이런 노력을 통해서 중독증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정신의학 관련 전문가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미국 컴퓨터접속중독센터의 자가진단 방법

미국의 컴퓨터접속중독센터(COLA)가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www.netaddiction.com)에 인터넷 중독증 (IA:Internet Addiction 또는 Webaholism) 징후를 다음과 같은 10가지로 분류, 이중 한가지에만 해당되더라도 IA라고 경고하고 있어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1. 하루도 빠짐없이 인터넷을 사용한다.

업무상 매일 사용하는 것은 예외. 그밖에 하루라도 인터넷에 접속하지 않을 경우 뭔가 허전한 느낌을 갖는다.

2. 접속한 후에는 시간 가는 줄 모른다.
무아지경에 빠져 다른 일은 까맣게 잊는다. 밤을 새우는 것이 다반사.
3. 외출빈도가 점점 줄어든다.
컴퓨터와 노는 시간이 즐겁다 보니 극히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밖으로 나가려하지 않는다.
4. 식사시간이 점점 줄고 모니터 앞에서 먹기도 한다.
인터넷에 빠지면 식사시간도 아깝다는 느낌을 갖는다. 빨리 끼니를 때우려니까 식사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일.
5. 인터넷에 과도한 시간을 보낸다는 사실을 부인한다.
알코올 중독자 대부분이 자신이 환자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과 마찬가지.
6. 주위사람들이 모니터 앞에 너무 오래 앉아 있는 다고 핀잔한다.
알코올중독과 일맥상통한 것이나 자신은 못 느끼는데 가족이나 직장동료 등이 지나치다고 지적한다.
7. 전자우편상자(메일박스)를 하루에도 몇 번씩 확인한다.
E메일이 와있을 것 같아 수시로 메일박스를 열어보아 직성이 풀린다. 메일이 없으면 실망하기도 한다.
8.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웹사이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며 자기 홈페이지 주소(URL)를 알리고 싶어 만달이다.
누군가 자신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칭찬해 주기를 바라는 심리상태. 인터넷에 무관심한 사람에게조차 홈페이지 주소를 알려주려 한다.
9. 직장 일로 바쁠 때에도 인터넷에 접속한다.
시간에 쫓기는 직장업무를 하면서도 잠시 휴식하는 기분으로 인터넷에 들어갔다 나오기를 반복한다.
10. 가족이 집에 없을 때 오히려 편안한 마음으로 인터넷에 접속한다.
인터넷을 할 때는 가족도 귀찮은 존재로 여긴다. 집에 아무도 없어야 편해진다.

▶사이버중독 점검을 할 수 있는 웹 - <http://www.cyadic.or.kr/page8.htm>

◆ 제 7호 퍼즐 정답

게	르	손		가		회	
	호			사	두	개	인
길	보	아	산		로		애
	암		떡			빌	
						라	
문	등	병	자		전	도	서
지			고	린	도		기
방	축					세	관

★ 지옥에 간 빌게이츠 ★

빌게이츠가 죽어서 하늘에 갔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길
"빌, 당신은 선행도 했고, 악행도 했군요.
자, 당신에게 가고 싶은 곳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주겠소."
그래서, 빌이 지옥을 구경했다. 그는 화씨
80도(섭씨 26.7도)의 기온에서
아름다운 여인들이 눈부신 해변을 뛰어다
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나서 그가 천국을 구경해 보니, 하
프와 노래 소리 그리고 찬양 같은
것들로 그것 역시 참으로 좋았다.
빌은 천사에게 지옥에 가고 싶다고 했다,
약 1주일 후, 빌을 보기 위해 지옥에 내려
간 베드로는 악귀들에게 얻어맞고 있는
빌을 발견했다,
빌이 천사에게 말했다,
"아름다운 여자와 멋진 해변은 다 어떻
게 된 겁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그건 화면 보호기였다네."

★ ☺ 은총을 주는 차★☺

어느 교회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가는 귀가 먹었다.
이분이 세 아들이 있었는데 하루는 외출을
하고 싶어 세 아들을 불렀다.
권 사 님 : 큰애야, 외출을 하고 싶구나. 네
가 나를 태워주겠니?
큰 아 들 : 예, 어머니, 제 소나타 승용차로
모실게요.
권 사 님 : 애야, 이 에미더러 소나 타고 가
라구, 쫄쫄쫄, 못된 놈 같으니라구.
둘째야, 네가 나 좀 태워줘야 겠
구나.
둘째아들 : 예, 어머니, 제 아벨라 승용차로
가세요.
권 사 님 : 뭐야, 이놈이 망령이 들었나? 에
미 나이가 몇인데 아를 배라 그러는 거야,
이놈아.
아이구, 셋째 너밖에 없구나.
셋째아들 : 어머니, 제 차는 그레이스 봉고
차라 어머니가 타기엔 힘들거예요.
권 사 님 : 조금 힘들면 어떠니. 네 차는 은
총(Grace)을 주는 차인데.

질 · 오 행 시

==> 순복음중앙교회 <==

권사 최순환

순: 순하고 양 같은 성도 여러분!
복: 복음 들고 앞장서서
음: 음란한 곳은 가지도 말고 듣지도 맙시다
총: 총심 잡아 마음 다치고
양: 양모하는 독수리 같이
교: 교인답게 생활하고
회: 회개하는 마음으로 삼시다

==> 하기수련회 <==

사모 이영주

하 : 하나님께
기 : 기도하여
수 : 수술받은 내 영혼
련 : 연단의 깊은 곳으로부터
회 : 회복되자

- 말라리아 -

학질모기의 교자(咬刺)로 인하여 매개되는 원충 감염증으로서 특이한 발작을 되풀이하는 열대병.

사람의 말라리아 원충에는 3일열·4일열·열대열·난형(卵形)의 각 말라리아 원충이 알려져 있는데, 특히 앞의 두 가지가 병증이 심하다. 말라리아는 열대지방을 중심으로 온대지방까지 널리 분포하며 이것은 말라리아를 전파하는 아노펠레스(학질모기)의 분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온대지방에서는 모기의 발생시기와 관계되며, 여름철에 유행한다. 이와 반대로 열대지방에서는 1년 내내 유행한다. 이와 같은 사실은 모기의 체내에서 말라리아 원충이 자라는 데 필요한 기온이 계속되는 것이 조건임을 알 수 있다. 예컨대, 25℃ 이상의 기온이 2주간 이상 계속되지 않으면 3일열 말라리아 원충은 모기의 체내에서 발육되어 전파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지 못한다.

〈증세〉 임상증세는 특유한 열발작과 빈혈 및 비장(脾臟)이나 간장(肝臟)의 종창(腫脹)을 들 수 있다. 열형에 있어서는 3일열 말라리아와 난형 말라리아가 3일째마다 4일열 말라리아는 4일째마다 열대열 말라리아는 부정형의 고열을 나타낸다. 개개의 열발작은 처음에 오한전율(惡寒戰慄)로 시작하는데,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이어 높은 열이 나고, 체온은 39~41℃에 이르며[灼熱期], 안면은 벌겋게 달아오른다. 그 극점(極點)을 지나면 많은 땀을 빼며 열이 내린다[發汗降熱期]. 열대열 말라리아의 경우 많은 말라리아 원충이 뇌의 소혈관에 괴어서 뇌의 연화소(軟化巢)를 일으키는 일이 있는데 이를 뇌형 말라리아라고 하며, 사망률이 매우 높다.

〈진단〉 혈액 속에 말라리아 원충을 증명함으로써 진단을 내린다. 혈액의 도말표본법(塗抹標本法) 또는 말라리아 원충을 집충(集蟲)하는 방법이 있다. 그 밖에도 보체

결합반응(補體結合反應), 혈청 콜로이드반응 등도 이용된다.

〈치료〉 1630년경부터 키나피(皮)가 사용되다가 1820년 퀴닌(키네네:kinine)이 추출되어特效약으로 사용되었다. 그 후 다시 유효한 키놀라민(아테브린)이 합성되어 적내형(赤內型)에 유효하여 1일 0.3g을 내복한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다시 강력한 클로로퀸이 합성되었고, 1일량 0.3~0.6g을 내복시켰다. 이들 약물로 충분히 치료하는 데도 말라리아는 자주 재발한다. 그 원인은 적외형(赤外型) 말라리아 원충이 쉽게 사멸하지 않고 오래 남아 있기 때문이며, 이 적외형 말라리아 원충에 잘 듣는 약이 요구된다.

한편, 한방에서는 학질(瘧疾)이라고 일컫는다. 그러나 사람의 체질에 따라, 또는 질병의 증세에 따라 일컫는 학질의 명칭도 다소 달라지고, 쓰이는 방제도 약간씩 다르다.

- 식중독 -

자연독이나 유해물질이 함유된 음식물을 섭취함으로써 생기는 급성 또는 만성적인 건강장애.

주로 발열·구역질·구토·설사·복통 등의 증세가 나타난다. 식중독을 원인물질에 따라 분류하면 세균성 식중독, 화학성 식중독, 자연독 식중독, 미생물 독성대사물질에 의한 식중독으로 대별할 수 있다. 각 부류에 속하는 독성물질은 그 종류가 매우 많으며, 독성물질은 당장 건강을 해칠 만한 양이 아니라 하더라도 많은 식품 중에 널리 분포되어 있어서 만성중독·발암성·돌연변이 유발성·기형유발성·알레르기성 반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식중독의 대부분은 세균에 의하여 생기는 세균성 식중독으로서, 여기에는 살모넬라·장비브리오·웰치균·병원대장균에 의한 감염형 식중독과 포도상구균, 보툴리누스균이 생성한 독소에 의한 독소형 식중독이 있다.

감염형 식중독은 살아 있는 유해세균을 다량으로 먹음으로써 일어나는 것이므로 식품을 가열해서 먹으면 세균은 사멸해 버리기 때문에 중독되는 일이 없다. 그러나 독소형 식중독은 세균은 죽어도 독소는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음식을 가열해도 남은 독소가 중독을 일으키는 경우이다. 화학성 식중독은 화학물질에 의한 것으로서 근래에 들어와 화학공업의 발달로 화학적 합성품의 대량생산이 가능해지고 이들이 식품공업이나 농업분야에 다량으로 사용되면서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였다. 특히 식품가공과정 중에 사용한 불법식품첨가물, 잔류농약 · 산업폐수에 의한 식품의 중금속오염, 또는 식품과 관련이 있는 각종 용기 · 기구 · 포장 등에서 용출되는 독성물질이 문제가 된다.

[자연독 식중독] 동 · 식물성 자연식품 중에 하나의 정상적인 구성분으로 존재하는 고유한 독성물질에 의한 중독으로서, 복어 · 모시조개 · 섭조개 등에 들어 있는 동물성 자연독과, 독버섯 등에 들어 있는 식물성 자연독이 자주 식중독을 일으킨다. 발생건수는 적은 편이지만 사망률은 가장 높다.

[미생물 독성대사물질에 의한 식중독] 맥각중독과 진균독(眞菌毒) 중독이 있다. 맥각곰팡이(Claviceps purpurea)에 오염되어 흑청색으로 변한 보리를 말하며, 그 양이 많은 경우에는 독성물질로 작용한다. 진균독(mycotoxin)은 곰팡이류의 대사산물에 의해 사람이나 동물에게 급성 또는 만성장애를 일으키는 물질군의 총칭으로서, 현재까지 많은 진균독이 발견되었다. 진균류는 쌀 · 땅콩을 비롯한 탄수화물이 풍부한 농산물이나 곡류에서 잘 번식하며, 특히 한국의 제주에서는 진균독의 일종인 아플라톡신(aflatoxin)이, 변질미에서는 황변미독이 검출되었다는 보고가 있다. 이들 진균독은 동물실험 결과 독성이 매우 강하며 발암성이 있다고 한다.

[살모넬라증] 세균성 식중독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음식을 섭취한 후 12~24시간이 지나면 증세가 나타난다. 주로 구토 · 복통 · 설사가 갑자기 나타나면서 두통 · 오한이 뒤따른다. 이러한 증세는 2~3일이 지나면 치유되고, 치사율은 1% 이하이다. 살모넬라균 보균자의 대변과 쥐 · 돼지 · 개 · 고양이 등의 분변은 세균의 중요한 급원이 되며, 특히 쥐는 이 세균을 배설 ·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 세균의 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식품을 취급할 때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하며, 쥐를 잡아 오염원을 없애도록 하고, 식품을 냉장함으로써 식품 내의 균의 번식을 억제해야 한다. 세균오염의 염려가 있으면 가열하여 세균을 죽인다.

[보툴리누스중독증] 보툴리누스균이 식품에 오염되어 생성한 독소가 원인이 되어 중독된다. 이것은 지금까지 알려진 독소 중에서 가장 심한 독성을 가진 것으로서 68%의 치사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 독소는 위나 장관에서 직접 흡수되어 12~24시간 내에 뇌조직을 침해하여 복시(複視:물체가 이중으로 보임), 연하곤란(嚥下困難) · 언어장애 · 호흡곤란 등을 수반하여 죽게 된다. 보툴리누스균은 일종의 단백질인데 열로 파괴(100℃에서 15분 가열)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열하면 중독을 막을 수 있다. 이 식중독은 주로 통조림식품이 완전히 살균되지 못했을 때 나타나므로, 통조림식품은 반드시 신용 있는 제조회사에서 만든 제품을 선택하고, 통조림통이 부풀어 오른 것은 먹지 말며, 의심스러운 식품은 폐기하도록 한다.

[포도상구균 식중독] 포도상구균이 식품에 오염되어 생성한 독소가 원인이 되어 중독되는 것으로서, 이 독소는 체내에 들어간 지 2~3시간 내에 발병하는 것이 특징이다. 구역질 · 구토 · 복통 · 설사 등의 증세를 나타내다가 1~2일이면 치유되고 치사율은 아주 낮다. 이 세균은 보통 사람의 상기도부(上氣道部)나 피부표면에 붙어서 증거나 전염병을 일으킨다. 따라서 식품을 더러운 손으로 취급하거나, 기침을 할 때 균이 음식에 들어가면 그 음식은 세균의 좋은 배양기(培養基)가 되어 증식하면서 독소를 내뿜는다. 이런 식품은 가열하여도 세균만 죽을 뿐 독소는 열에 강하여 파괴되지 않으므로 식중독을 일으킨다. 그러므로 이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는 세균이 번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품을 냉장보존하고 손을 청결히 하며, 손에 화농이 있는 사람은 조리하지 않아야 한다.

[장염비브리오성 식중독] 장염비브리오균에 오염된 식품을 섭취한 후 11~15시간이 지나면 증세가 나타난다. 주로 복통(상복부 격통)과 발열이 있고, 구토 · 설사 · 구역질을 한다. 어패류에서 흔히 번식하므로 생식을 삼가고 식품의 가열조리와 저온저장에 의하여 예방한다.

[가스괴저균 식중독] 가스괴저균(壞疽菌)은 혐기성(嫌氣性) 박테리아로서 조리 전의 식품 특히 도살한 고기를 실온에 방치하였을 때 이 세균의 좋은 배양기가 되어 빠른 속도로 번식하면서 독소를 내뿜는다. 중독증세는 섭취 후 12~18시간이면 나타나는데, 주로 설사와 복통을 수반하는 비교적 가벼운 증세이고, 열이나 구토가 나는 일은 없다. 예방을 위하여 고기를 깨끗이 처리해서 냉장해야 한다.

우리가족 피서길 ‘건강불정객’

기대를 안고 찾았던 바다와 산, 섬 등 피서지에서 뜻하지 않는 사고로 휴가를 망칠 수가 있다. 도시에는 손쉽게 병원을 구할 수 있지만 야외에서는 대수롭지 않은 사고가 큰 문제거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휴가철에 주의해야 할 건강관리 상식과 유익한 응급처치법을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알아본다.

♣ 일사병 - 무더위에 오래 노출되면 걸리기 쉬우므로 통풍이 잘 되는 모자를 쓰고 충분한 수분을 취하는 것이 예방법이다.

환자가 생기면 먼저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로 옮긴 뒤 옷을 벗기고 물을 끼얹어 체온을 떨어뜨려야 한다. 이럴 때 물에 적신 모포 등을 덮어 주면 효과가 빠르다. 또 환자는 땀을 많이 흘려 체내에 염분이 고갈된 상태일 수도 있으므로 상태가 가벼울 때는 시원한 이온음료나 묽은 소금물을 먹여 염분을 보충해줘야 한다. 그러나 의식이 없거나 생명이 위중할 정도일 때는 아무 것도 먹이지 말고 급히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

♣ 햇볕 화상 - 뽕악별에서 지나치게 살을 태우는 것은 피부에 좋지 않다. 강한 자외선은 잡티와 기미·주근깨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피부의 탄력을 없애 잔주름을 만든다. 또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피부에 피로가 쌓이고 각질화가 진행돼 피부 노화를 촉진하게 된다.

따라서 외출하기 1시간 전에는 자외선 차단크림을 바르고 뽕악별에 나갈 땐 긴팔 옷을 입고 챙이 큰 모자를 쓰는 것이 좋다. 자외선 차단크림은 물이나 땀에 씻기기 쉬우므로 1~2시간마다 다시 발라줘야 한다.

피부가 발개지고 화끈거릴 때는 찬물이나 얼음으로 찜질하는데 특히 찬 우유나 오이팩이 효과적이다. 물집이 생기면서 아프며 살갗이 검게 타거나 하얗게 보일 때는 2도 이상 화상이므로 반드시 병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 배탈 - 찬 음식을 먹어 설사가 나고 복통이 있을 때는 편안한 자세로 누워서 따뜻한 물수건으로 배를 찜질해 준다. 우유 같은 유제품 대신 이온음료 등을 마셔서 수분과 전해질을 충분히 공급해주면 며칠 이내에 저절로 낫는다. 설사가 멈추면 미음, 죽, 밥의 순서로 가벼운 식사를 하게 한다.

그러나 소변량이 급격하게 줄 정도로 탈수가 심할 때나 고열이나 오한을 동반할 때, 설사에 점액이나 피가 섞여 나올 때는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

♣ 뱀이나 벌레에 물렸을 때 - 뱀에 물리면 곧바로 물린 부분을 흐르는 물이나 알코올로 씻어낸다. 천으로 상처 윗부분을 묶어 독이 심장으로 가지 못하게 한 뒤 입안에 상처가 없는 사람이 독을 빨아내고 재빨리 병원 응급실로 옮겨야 한다.

벌레에 물렸을 때 가렵다고 긁지 말고 약을 먹거나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른다. 그러나 얼굴이 창백해지거나 숨을 잘 못 쉬면 즉시 병원으로 데려 간다. 벌이나 벌레에 쏘였을 때는 족집게로 침을 뽑고 나서 소독한 뒤 찬 찜질로 부기를 막고 스테로이드연고를 바른다. 그래도 통증과 부기가 계속 심해지면 병원을 찾는다.

♣ 물놀이 사고 - 환자가 숨을 쉴 수 있도록 기도를 유지하는 자세를 취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자가 의식이 없더라도 호흡이나 맥박이 뛰고 있으면 금방 생명이 위태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편안하게 누인 뒤 몸을 모포 등으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좋다. 만약 환자가 토하면 얼굴을 한 쪽으로 돌린다.

흔히 영화나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처럼 배를 눌러 마신 물을 토해내게 하는 것은 자칫 위속의 내용물이 기도를 막을 수 있으므로 몹시 위험하다. 그러나 맥박과 호흡이 확인되지 않으면 즉시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빨리 의료기관으로 옮겨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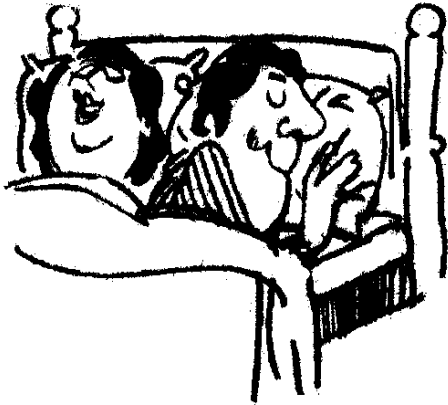
♣ 화상 - 물집이 잡히는 2도 화상이나 화상 부위가 하얗게 변하면서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3도 화상이면 위험하다. 2도 이상의 화상을 당했을 때는 먼저 화상 부위의 옷이나 신발을 벗긴 뒤 차가운 물에 10분 이상 담근다. 그러나 옷이 화상 상처에 달라붙는 경우는 억지로 떼어 내지 말고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

얼마만큼 통증이 줄어들면 깨끗한 천으로 화상 부위를 감싼 뒤 가능한 한 높이 유지해 부어오르지 않도록 하면서 병원으로 옮긴다. 이때 연고나 크림 등 외용약품이나 소주, 된장 등을 함부로 바르지 않도록 한다.

한편 피서여행을 떠날 때는 기후와 환경조건을 예상해서 간단한 구급약을 준비하고 작은 응급처치 책자와 지도, 가까운 병원 연락처 등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하다.

우리 가정 행복 체크

♥ 우리 부부는



1. 우리 부부는 잘 이해하고 격려할 뿐만 아니라 서로 존중한다,
2. 우리 부부는 서로 열린 대화를 한다,
3. 우리 부부는 꾸준히 서로 성숙을 위해 노력한다,
4. 우리 부부는 삶의 목표를 갖고 있으며 그 목표 아래 삶을 즐긴다,
5. 우리 부부는 서로 정직하다,
6. 우리 부부는 서로 예절을 지키면서 산다,
7. 우리 부부는 서로 신앙관계(봉사, 헌금)에 일치한다,
8. 우리 부부는 자녀 양육에 같은 열심과 철학이 있다,
9. 우리 부부는 경제생활에서 의견 충돌이 없다,
10. 우리 부부는 부부관계(성생활)에서 서로 만족한다,

점수 : 그렇지 않다 ----> 그렇다

1 2 3 4 5 6 7 8 9 10

- A. 90~100점 : 우리 부부의 건강 잘 유지합니다,
 B. 80~89점 : 우리 부부는 더욱 건강해 질 수 있습니다,
 C. 70~79점 : 우리 부부는 건강을 해칠 위험소지가 다분하군요, 주의할게요,
 D. 60~69점 : 우리 부부는 매우 위험하군요, 전문가와 상의할게요,
 E. 59점 이하 : 우리 부부맞나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을게요,
 꾸준한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겠지요.....

♫ 우리 가정은 얼마나 건강할까

1. 출퇴근을 기분 좋게 해 주세요 - 남편은 아내의 태도를 통해 존경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2. 남편의 자리를 잘 정돈해 주세요 - 남편의 자리가 어지럽혀 있으면 묵묵히 잘 치워주세요.
3. 남편의 고충을 이해하고 남편의 처지를 들어주세요 - 남편은 자기 편이 되어 들어줄 사람을 찾아 매일 아내가 기다리는 가정을 찾아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4.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자주 해 주세요.
5. 남편이 아름답게 느끼도록 외모를 잘 가꾸세요 - 신혼시절의 매력을 유지 하도록 노력하세요.
6. 남편에게 짜증스런 목소리 나, 바가지를 긁는 잔소리는 삼가세요.
7. 남편을 아이들 앞에서 높여서 칭찬해 주세요.
8. 자녀 교육과 가정생활에 대한 양서를 자주 읽고 가정생활에 적용시키세요.
9. 남편의 인격을 무시하는 말은 삼가세요.
0. 남편의 직장이나 사회생활에 있었던 일들을 알려고 캐묻지 말아주세요.

사진으로 보는 성지순례

25. 헤브론



대표적인 족장들의 도시인 헤브론의 역사는 이집트에 내려갔던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해발 950m의 헤브론에 있는 마르레 상수리 수풀에 거하므로 시작되었으며(창 13:18~33), 은 40세겔을 주고 막벨라(Machpelah, 쌍굴)의 동굴을 샀다(창 23:16~18). 그리고 그곳은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사라, 이삭, 리브가, 야곱, 그리고 레아 등 모든 조상들의 무덤이 되었다.

헤브론에 관한 신약 성경에서의 기록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다만 헤롯 대왕 때에 헤브론의 막벨라 동굴 위에 거대한 건축을 함으로써 조상들의 무덤을 보호하는 일을 하여, 오늘까지 그가 쌓은 예루살렘 선전 벽과 더불어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8세기 이후 아랍이 이 지역을 장악한 이래 족장들의 무덤은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아랍인들이 관리하고 있어, 1967년 6월 전쟁이후 이 곳을 찾는 유대인들과 종종 충돌을 일으키기도 한다.

26. 예리고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성곽 도시를 가지고 있는 예리고는 사해 북동쪽 13Km 지점 유다 광야에 자리잡은 가장 크고 아름다운 오아시스의 도시이다. 예리고는 예로부터 키가 10m가 넘는 종려나무들이 많아 '종려의 성읍'(신 34:3, 사 3:13)으로 불리며, 출애굽 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광야생활을 청산하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첫 발을 디디던 도시였다.

물이 귀한 사막 한 가운데 물이 솟아나오는 여러 개의 샘(사진 : 엘리사의 샘)을 가지고 있어, 주변의 풀 한 포기 없는 황량한 유다 광야와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는 아름다운 도시로 천연적으로 사람이 거주하여 살기에는 최적의 장소이며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길목이기도 한다.

27. 요단강



이스라엘에서 가장 길고 큰 강으로서 대협곡 (the Great Syro-African Rift)의 시작인 헬몬산 남쪽 기슭으로부터 홀라 계곡을 따라 갈릴리 호수로 이어지는 상부 요단강 (upper Jordan River)과 갈릴리 호수 남쪽 하구를 통과하여 요르단 골짜기 (Jordan Valley)를 따라 사해에 이르는 하부 요단강 (lower Jordan River)로 나누어진다. 이 강의 길이는 약 500Km, 북쪽의 해발 900m로부터 해발 -210m의 갈릴리 호수, 그리고 -400m의 사해로 이어지는 가파른 경사지를 따라 흐르고 있다.

현재의 강폭은 8~15m로 비교적 좁은 편이나 고대 요단강은 매우 크고 자주 범람하기도 하였다. 특히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행렬이 요단강을 건너던 때의 기록 가운데, "요단이 모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수 3:15) 하여 요단강이 우기(10월 ~ 3월)에는 항상 큰 강으로 변하곤한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

28. 사해



최장 길이 85Km, 최장 폭 17Km, 표면적 약 1,015 평방Km 인 사해는 그 수면이 지중해보다 398m나 더 낮다. 즉 지구 표면 중에서 가장 움푹 들어간 곳이다. 구약에는 염해(Yam Hamelach = Salt Sea 창 14:3)라고도 불리는 이곳은 생물이 전혀 살지 않기 때문에 사해(死海)라고 불리며 염도가 약 33%로서 세계적으로 염분이 가장 많은 물이다. 따라서 사람이 사해에 들어가면 손발을 휘젓지 않아도 몸이 저절로 둥둥 떠 있게 된다.

사해 지역에 위치하였던 도시로는 소돔, 고모라, 아마드, 스보임(창 10:19)이 있으며, 이 도시의 왕의 목록도 이어 기록되어 있다(창 14:2). 소알(창 13:10) 또한 이 지역의 도시였다. 성경의 보도에 의하면 이 지역은 "물이 넉넉하여 여호와와 동산" 같았으며, 이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다"고 해석하고 있다(창 13:10, 사 1:10, 마 11:23~24).

자동차보험

- 7월부터 달라지는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제도와 규정 -

- ☞ **석유제품 가격인상** =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특별소비세 인상으로 수송용 LPG는 l당 385원에서 455원으로 18.2%가, 경유는 679원에서 735원으로 8.2%가, 등유는 595원에서 626원으로 5.2% 오른다.
- ☞ **차량연한에 따른 차등과세** = 배기량이 같더라도 새차와 헌차를 차등과세한다. 신규등록일에서 3년이 되는 해부터 해마다 자동차세를 5% 경감해 12년 이후부터는 최고 50%까지 경감한다.
- ☞ **주-정차 단속 공무원 확대** = 종전에 교통행정과 관련된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한정해 주-정차 위반 단속권을 줬으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주-정차의 단속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돼 시장 등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확대한다.
- ☞ **운전중 휴대용 전화이용 금지** = 6월 30일부터 자동차운전자는 자동차 운전중에는 휴대용 전화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 **車책임보험 미가입 범칙금 처리** = 7월 1일부터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몰다 적발되더라도 범칙금만 납부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기존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내렸으나 보험가입기간 종료를 알지 못해 미처 보험에 들지 않았다 적발되는 경우가 많아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해 범칙금을 사업용승합차의 경우 200만원, 일반 승용차에게는 40만원이 부과기로 했다.
그러나 1년 이내 동일한 위반행위나 강제보험 가입을 통지 받고도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 ☞ **자동차 무단방치 범칙금 부여** = 자동차를 무단방치할 경우 자동차의 종류 및 자진처리 명령에 응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20만~150만원 범칙금을 부과한다.
- ☞ **승용차 보험료 자유화** = 승합차 영업차량에 이어 8월부터 승용차 보험료도 완전 자유화된다. 이에 따라 △연령△성△결혼여부△지역 등에 따라 보험료가 세분화되고 보험사마다 보험료 체계가 달라질 전망이다.

● 자동차 보험약관 변경내용

	현행	개선
1. 사위와 장인장모의 가족인정 동거조건 폐지	사위와 장인장모는 기명피보험자와 동거하는 경우에만 가족으로 인정	동거여부에 관계없이 가족으로 인정
2. 무보험차상해담보의 피보험자 범위 확대	피보험자를 위한 운전자 중 승낙피보험자는 피보험자 범위에 불포함	승낙 피보험자도 피보험자 범위에 포함
3. 무보험차상해담보의 무보험 자동차범위 명확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차량이외 차량은 무보험차 해당여부 불명확	군용차량, 건설기계, 농기계, 원동기장치 자전거도 포함되는 것으로 명확화
4. 운전자보험의 보상대상 사고범위 명확화	운행중 발생한 사고 보상	소유, 사용, 관리 중 사고를 보상하는 것으로 명확화
5. 중고차로 최초보험가입시 책임개시시기 변경	보험료 받은 날의 24시부터 보상	보험료를 받은 시점으로 부터 보상
6.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지급보증 명문화	치료비 지급보증에 관하여 자동차보험약관에 미반영	자동차보험 약관에 반영
7. 가해자의 음주운전 부담금 미납시 보험회사 우선지급	음주운전부담금 미납시 보험회사 우선지급에 관한 약관규정 없음	가해자가 미납한 경우 보험회사가 우선지급 후 가해자에 구상도록 명확화
8. 자진신체사고시 1사고당 보상한도액 폐지	1인당 지급한도와 1사고당 보상한도액 별도 규정	1사고당 보상한도액 폐지



♠ 사랑하는 두 아들 정민 정석에게

아빠, 엄마의 소중한 보물들로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들들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좋아하는 말씀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는 자가 되거라

즐거운 방학을 맞이했구나!

신나게 보람되고 알찬 방학생활이 되어야겠지?

아빠, 엄마가 두 아들들의 계획을 도울 테니 성실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려무나

아빠께서 사랑의 손길로 안아 주시며 늘 기도해 주시는 그 내용들 알지?

또 엄마가 외치는 단어 알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존심을 지키는 그런 우리 정민, 정석이가 되어 큰 비전을 펼치는 자가 되거라.

우선순위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라야 자신과 모든 세계를 바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 바른 눈을 가지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자.

사랑하는 아들들을 생각하며 엄마가....

내 등의 짐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의 짐이 없었다면 나는 사랑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로 남의 고통을 느꼈고 이를 통해 사랑과 용서도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 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미숙하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가 내 삶의 무게가 되어 그것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성숙시킨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겸손과 소박함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 때문에 나는 늘 나를 낮추고 소박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기쁨을 전해 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물살이 센 냇물을 건널 때는 등에 짐이 있어야 물에 휩쓸리지 않고,

화물차가 언덕을 오를 때는 짐을 실어야 헛 바퀴가 돌지 않듯이

내 등의 짐이 나를 불의와 안일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했으며,

삶의 고개 하나 하나를 잘 넘게 하였습니다.

아내가 하지 않으면 안될 10가지

1. 가정의 상비약을 준비하라. 가장 큰 상비약은 칭찬과 격려이다.
아내의 말 한마디는 남편에게 살맛을 부여한다. 바가지를 굽는 것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과 같다.
2. 생명의 요리사가 되어라.
키스는 한 순간이지만 요리는 영원하다. 불평과 짜증으로 요리하지 말라. 가장 좋은 양념은 사랑과 감사하는 마음이다. 가족들의 입맛을 사로잡지 못한다면 아예 사표를 써라.
3. 얼굴에 미소를 띄워라. 미인계가 아니라 미소계를 써라.
이 세상이 눈물과 절망의 골짜기라면 미소는 절망의 골짜기에 띄워놓은 무지개와 같다. 미소로 소망을 심어 주어라.
4. 고객감동의 서비스 정신으로 살아라. 고객만족만 가지고는 안된다.
남편을 왕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나는 저절로 왕비가 된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5. 남편만의 시간을 주라.
모든 남자는 '동굴'을 가지고 있다. 남자들은 자신만의 '동굴'에서 휴식을 취하는가 하면 상처를 치료하기도 한다. 때문에 남편을 들들 볶지 말아라. 위대한 사랑은 딱딱한 논리나 뻘뻘한 일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영감은 낮잠을 자고 장작을 패며 낙엽을 쓰는 작은 일들에서 시작된다.
6. 남편의 자존심을 세워 주어라. 한번 입게 된 자존심의 상처는 회복이 불가능하다.
남편을 하늘(天)이 아니라 하늘 이상(夫)으로 모셔라. 남편을 어떤 경우에도 비교하지 말아라. 남자가 가장 듣기 좋아하는 말은 "역시 당신이야!" 이 한마디다. 그 외에는 어떤 말도 하지 말라.
7. 남편을 돈주머니로 여기지 말라. 남편은 대표이사가 아니다.
남편을 지위나 수입으로 평가하지 말아라. 남편은 정신적 지주여야 한다. 생활비를 받을 때마다 '성은 이 망극하다'는 식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라.
8. 남편의 성적, 정서적 요구를 무시하지 말아라.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의 욕구를 안다.
가장 큰 질병은 "욕구불만"이다. 채워지지 않은 욕구는 폭력만을 낳는다. 기다리지 말고 먼저 다가가라.
9. 남편과 취미생활을 같이 하라. 머릿속에 아내가 없으면 이미 남편이다.
같이 나누어야 할 일은 잠자리만이 아니다. 남편을 혼자 내버려두지 말라. 남편과 더불어 같이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의 무대를 넓혀라.
10. 친정보다 시댁을 우선하라.
시댁을 돕는 일에는 군말을 말라. 친정과 비교 말고 최선을 다하라. 친정은 그 다음의 문제다. 진심으로 시댁을 위하면 남편은 당연히 친정문제를 책임져 준다.

남편이 하지 않으면 안될 10가지

1. 행복 비타민을 먹여라. 가장 좋은 비타민은 '비타민 H'이다.
표현되지 않은 사람은 사랑이 아니다. 하루에 한번씩 사랑한다고 말하라. 사랑은 보약과 같다.
2. 여성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 아내를 연구하라.
아내와 사는 것은 군대를 지휘하는 것보다 힘들다. 아내를 알지 못하고 아내와 살 수 없다. 지식을 쌓아 가라.
3. 최고의 리더십은 기도로부터 시작된다.
잔소리와 꾸지람 대신 기도하라. 기도를 이겨낸 잔소리는 없다. 기도야말로 하루를 여는 열쇠며 하루를 닫는 자물쇠와 같다. 아내와 자녀를 위해 기도하라.
4. 가장 깊은 사랑은 기다림이다. 서두르지 말라.
사랑의 핵심은 기다림에 있다. 제트기도 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기다릴 수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5. 베갯밑 대화를 나누어라. 가장 깊은 대화는 침실에서의 대화이다.
아내가 원하는 것은 고고는 소리가 아니다. 침실에서 돌아눕지 말라. 마주보고 누우면 가장 가까운 사이지만 돌아눕는 순간 부부거리는 10만리가 되고 만다. 지구를 한바퀴(40,350km) 돌아야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6. 돈을 맡겨라. 돈은 애정의 척도가 된다.
아내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은 가계부 좀 보자는 소리다. 보여주기 전에는 훔쳐볼 생각을 말하라. 정 보고 싶거든 이렇게 말하라. "모자라지 않아? 힘들지."
7. 아내가 아니라 여성으로 대하라.
아내의 소유의 개념이지만 연약한 여성은 보호의 개념이다. 내 아내이기 전에 한 사람의 여성임을 기억하고 보살펴 주라. 아내를 관리하려 들지 말라. 아내는 재산이 아니라 파트너다.
8. 가족들을 위해 보험을 들어라. 가장 큰 보험은 시간보험이다.
저축한 것 이상을 찾아 쓸 수는 없다. 가족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이익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잠시라도 가족들을 위해 시간을 투자해 보라. 가정은 시간으로 쌓아올려지는 성(城)과 같다.
9.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아내와 싸워 이기려는 것이다. 꼭 이기고 싶거든 자신을 이겨라. 승리자 곁에는 언제나 패배자만 남지만 사랑하는 이 곁에는 사랑하는 이들로 가득 차게 된다.
10. 아내를 키워라. 그리고 아내와 생의 목표를 같이 나누어라.
아내를 식모로 취급하지 말라. 아내도 자라가야 한다. 마이너스 성장이 아니라 플러스 성장을 하도록 하라. 때로는 아내에게 품위유지비도 지불해 보아라.

詩

"나의 아내"

고 훈 목사

나를 홀로 빛을 때
당신은 나의 가슴으로 빛었습니다
당신 몸에서 향취가 솟아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내 아이를 받는 여인
당신은 우리 사이에
세월도 허물지 못할
다리를 놓았습니다

당신은 단 하나밖에 없는
우리 집 얼굴입니다
밖에서 돌아온 아이들이 찾는 얼굴
밖에서 돌아온 어머니가 찾는 얼굴
밖에서 돌아온 나도
맨 처음 보고 싶은 얼굴은 당신입니다

당신이 비워 놓은 자리를
채울 보물은
이 세상에도 저 세상에도 없습니다

당신 손끝에서
살림들이 숨쉬고
보살핌 속에 오늘도
식구들은 제자리를 찾습니다

내가 홀로 있을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언덕은 당신뿐입니다
내가 슬플 때
내 대신 눈물을 흘려 줄 사람도
이 세상에서 당신뿐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나의 홀어머니로 하여
아직은 두 번째 사람입니다
나의 주님으로 하여
영원히 두 번째 사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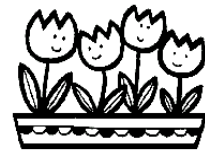
8월의 교회력

* 교회 연합 하기수련회 (6~9일) * 윤희자전도사(한예지 유혜진 이성재), 중국선교(13~18일)	5	수련회헌신예배	12	성찬식	19	청년회 헌신예배	26	선교사 초청집회
		한글성경 펴낸 로스선교사 별세(1915)		황해도회에서 감리교부흥사 이용도목사에게 금족령 내림(1931)		남감리교 선교연회 발족(1914)		존 칼빈 별세(1564) 항일 여성단체, 근우회 창립-김활란, 황신덕 등 350여명 회원(1927)
	6		13		20		27	
		크리스찬 신문 창간(1960)				독일 신학자, 볼트만 출생(1884) 루터교 신학자, 폴 틸리히 출생(1886) 한국교회 여집사 제도를 제의한 한석진목사 별세(1939) 개혁교회 세계연맹 창립총회(케냐 나이로비)(1970)		
	7	침례식	14		21		28	
		감리교 북한선교단 결단(1972)		육군 군종센터 개관(1966)		대한성서공회, 점자성경 출판(1957)		히포의 성 어거스틴 별세(354) 예수교 대한 감리회 조직(1962) 아시아 선교협의회 개최(1975)
1	8		15	광복절	22		29	
		감리교 조선신학교 발족 (회장 아펜젤러 선교사)(1885) 가나안농군학교 설립자 김용기장로 별세(1988)		에수회 창립(1534) 신사참배 거부로 수감된 이기선,채정민,손양원목 사 등 20년만에 출옥(1945) 77만족복음화성회 개최(1977) 한국개신교 백주년 선교대회(1984)				한국 기독교 문학회(회장) 박두진) 창립(1963)
2	9		16		23		30	
		성결교 부흥운동의 이성봉목사 별세(1956) 기독교 어린이 현장선언(1964)		한글성경 보급한 귀츨라프선교사 별세(1883)		찰스 피니목사 별세(1875) 기독교신문 창간(1938)		감리교 양주삼목사 순교(1950)
3	10		17		24		31	
		아펜젤러 배제 학당 설립(1884) 구약신학자 마틴 노트 출생(1902)		영국인 인도선교사 윌리엄 케리 출생(1761) 미국 남침례교 한국선교부 재단 설립(1967)		영국 청교도 목사 존 오웬 별세(1638) 프랑스의 위그노파 5만명이 로마카톨릭에 의해 학살(1752)		
4	11		18		25			
		성경학자 지그문트 모빙켈 출생(1984) 김활란박사, 막사이사이상 수상(1963)		남감리교 선교연회 발족(1914) 대한성서공회 재단법인 인가(1947)		니케아 종교회의의 종결(325)		

◎ 8월

1. 하기수련회 헌신예배 / 8월 5일
2. 교회 연합 하기수련회 / 8월 6일~9일(3박4일)
주제 : 하나님나라
주최 : 푸른초장교회 & 순복음중앙교회
3. 침례식 / 8월 7일 장소 : 태안, 구례포해수욕장
4. 성찬식 / 8월 12일(주일) 오전예배
5. 청년회 헌신예배 / 8월 19일 오후 8시
6. 선교사 초청 집회 / 8월 26일

시사상식



- 시너지 효과 -
(synergy effect)

기업합병으로 얻는 경영상의 효과를 말한다.
기업간의 합병으로 2+2 →5와 같은 경영상의 종합효과, 상승효과를 가리키는데
시너지란 본래 인체의 근육이나 신경이 서로 결합하여 나타나는
활동 또는 그 결합작용을 의미한다.

참고) 역(逆) 시너지 효과:

새로운 설비로 생산해야 할 제품을 기존의 설비로
무리하게 생산하여 불량품이 속출하고 큰 적자를
보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 유추열 펀드 -
(Mutual Fund)

유추열펀드는 투자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개인투자자들에게 전문적인 관리체계에 의한 다양한 투자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한 미국 투자신탁의 주류 펀드 형태.
유추열펀드란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에 투자하면 주주가 되는데 이렇게 모아진 막대한 투자자금을 전문가들이 고도의 투자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입니다.
유추열펀드의 운영구조는 기능별로 크게 네 개의 전문기관으로 나뉜다.
유추열펀드 컴퍼니인 증권투자회사,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회사, 투자자들에게 펀드를 판매하는 판매회사, 투자자산을 보관하는 보관회사 등입니다.

- 오존층(Ozonosphere) & 오존홀(Ozonehole) -

지구를 둘러싸는 두께 약 20km의 오존을 많이 함유하는 층.
오존(O3)은 태양의 자외선에 의해 산소(O2)에서 만들어지며, 생물에 해를 끼치는 자외선의 대부분은 이 오존층에서 흡수된다.
최근 프레온 가스가 오존층을 파괴하고 피부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규제책이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다.

참고: 오존홀(Ozone hole)

대기의 20~30km 높이에 있는 오존층이 파괴되어 구멍처럼 되어 있는 부분.
남반구의 봄(9~10월)의 오존(O3) 전량분포(全量分布)는 남극 대륙상에서 극소역(極小域)이 되어 이를 오존홀이라 한다.

목사

1. 기업예배 / 주복카(7월 5일)
2. 특별새벽 기도회 / 인도
(7월 2~7일)
3. 교회수련회 준비 / 프로그램 제작
4. Yes Mission 찬양예배 참석
(7월 10일)
5. 장모님 회갑연 참석 / 7월 17일
6. 여름성경학교 개폐회예배 설교
7. 심방 / 새신자 등록(7월 31일)
한동익성도

교인

1. 등록 / 한동익성도(전 집사)
송산면 무수리(전도 배병철집사)
김장식청년
당진읍 읍내리(전도 최성재권찰)
2. 이사 / 류정훈성도(서울로)
3. 찬양사역 / 박승철청년
(Yes Mission, Drumer)
4. 금식기도 / 김홍분권찰(오산리기도
원, 7월 30~8월 5일)

교회

1. 여름성경학교 / 7월 23~25일
협력교사제도 실시
2. 헌신예배 /
여름성경학교(7월 22일)
하기수련회(8월 5일)
청년선교회헌신예배(8월 19일)
3. LCD 프로젝터 설치 / 교육, 예배
장비로 활용
4. 중국선교여행 / 8월 13~18일
윤희자전도사, 한예지학생
유혜진아동, 이성재아동

	대상	요일	모임	시간	비고
예배	장년	주일	1부 예배	오전 8시	예정
			2부 예배	오전 11시	
		수요	저녁 예배	오후 7:00(11월~3월) 오후 8:00(4월~10월)	
			저녁 예배		
			아침 예배	오전 11시	
	주교	금요	구역 예배	각 가정에서	
		주일	오전 예배	오전 9시	
	학생		오후 예배	오후 3시	
		토요	성경공부	오후 5시	문화활동 있음
		주일	정기 예배	오후 5시	
기도	장년	금요	철야기도회	밤 9시	
		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5시	
교육	장년	목요	초신자양육	오전 11시	2회(사무실)
		목요	새신자훈련	오후 1시	1회(사무실)
		화요	평신도훈련	오후 8시	조직신학
		목요	평신도훈련	오전 11시	
		화요	구역장공과	오전 6시	
		화요	제자훈련(초급)	오후 9시	
		목요	제자훈련(중급)	오전 9:30	
			제자훈련(고급)	오전 9:30	
		주중	일대일양육	정한시간	가정, 직장
		목요	영적성장세미나	오전 11시	격월
모임	성가	주일	연습	오전 10시	오후 12:30
		토요	연습	오후 5시, 8시	
활동	운동선교단	수요	1기(레마)	오전 10시	연습
			2기(살롬)	오후 1시	
		토요	3기(셀라)	오후 5시	
	찬양선교단		연습	매주 화, 목	오후 7시
	컴퓨터	월요	컴퓨터교육 및 작업	오후 5시	컴퓨터팀
		화~토	컴퓨터교육	오전 10시 ~ 오후 9시	PC방 운영 교육생
	기도팀	월~토	1시팀	오후 1시	개인기도 중보기도 교회기도
			3시팀	오후 3시	
			9시팀	오후 9시	
	문서	월요	문서발간위원회	오전 11시	순복음Life지
		월요	행정팀	오전 10시	주보, 엽서 등

◆ 「순복음 Life」 후원자를 찾습니다. 감동과 사명으로 참여해 주실 분은 연락바랍니다.

☎ 표지 1면을 참고 은행계좌번호 481076-56-044087(농협) 예금주-김미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 후사 사람이며 다윗의 용사들 가운데 한 사람. (삼하 21:18)
3. 바울의 옥중서신이며 신약의 열한 번째 책은?
5. 예레미야가 포로로 바벨론에게 끌려가다가 풀려난 곳은? (렘 40:1)
7. 제물을 드릴 때 태우지 않고 번제단 위에서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법 제사법. (레 7:30)
8. 나홀의 넷째 아들이며 아브라함의 조카. (창 22:22)
9. 양의 우리에게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OO요. (요 10:1)
10. 살롬의 아들이요 선지자 예레미야의 사촌은? (렘 32:7)
13. 다윗 왕의 아내인 밧세바의 또 다른 이름. (대상 3:5)
15. 빌레몬의 종이였으며 감옥에서 바울을 만난 자. (몬 1:10)
16. 제자들이 못 고친 소년의 질병을 예수께서 고치셨던 병. (마 17:14~20)

<세로 열쇠>

- 1)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이며 모세의 아내 이름. (출 18:2)
- 2) 게으른 자여 OO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잠 6:6)
- 3)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삼상 7:12)
- 4) 하나님께 맹세하여 드리는 제사. (레 22:18)
- 6) 바울이 드로아에서 밤에 어느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되는가? (행 16:9)
- 7)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눅 8:3)이며, 예수님 부활하신 빈무덤을 발견한 여인들 중 한 사람. (눅 24:10)
- 11) 로마로 가던 도중에 바울의 일행을 태운 배가 파선됨으로써 모든 여행자들이 상륙했던 섬. (행 28:1)
- 12) 총독 서기오에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 이를 대적하여 소경이 되었던 자의 직업. (행 13:8)
- 13)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장소는? (계 1:9)
- 14) 여리고의 멸망 후에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노획물 중에 일부를 훔쳤던 자. (수 6:17~19)

♣ 누구든지 정답을 작성하여 8월 22일까지 제출하면 추첨하여 시상함.

♣ 1. 전자우편 : hagape@netsgo.com (교회), kmjagape@borahome.net (위원장)

2. 일반우편 : 충남 당진군 당진읍 채운리 162-1 (우) 343-800 순복음중앙교회 문서발간위원회 앞

☎ 제7호 당첨자 시상 - 1등 : 현덕규 2등 : 강난순

참가상 : 김형진, 권복순, 인성자, 송미정, 김종숙

▶ 교회를 찾아오시는 길 ◀

▲ 문서발간위원회 ▲

위원장 : 김미진 집사
서 기 : 이종희 성도
회 계 : 구옥순 성도
위 원 : 박순남 집사
손현숙 권찰
윤희자 전도사
이영주 성도
편 집 : 한승권 목사
도우미 : 류정훈 성도
김진숙 선생

